

建軍 60년 첨단전력 화력시범

승진훈련장에서 1만2천여명 초청 시범

건군 60주년 기념 합동화력운용 시범이 9월26일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국내외 주요인사 및 일반 시민, 외국무관, 방산업체 관계자 등 1만2천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시범은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육군 5군단장(중장 한기호) 지휘하에 육군의 K-9차주포, K1A1전차 등 주요화기와 병력을 비롯해 공군 F-15K, KF-16, 미군 아파치 헬기(AH-64) 등 21개 부대 2천여명의 병력과 17종238문(정)의 화기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다.

이날 합동화력운용 시범은 기계화부대, 화력자산, 항공 및 공군자산이 통합·집중된 NCW체계하 통합 전투수행 모습이 30분간 펼쳐졌다.

네트워크 중심전(NCW)은 인공위성, 포병탐지레이다 등과 같은 탐지체계를 이용하여 적을 먼저 찾아 이를 실시간(Real-Time)에 작전



우수한 기동력과 사격통제능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군의 주력 전차인 K1A1전차가 자체 방호를 위한 연막탄 사격과 함께 기동하고 있다.

이번 시범에는 공군 F-15K가 올해 7월에 전력화된 이후 최초로 합동화력 운용에 투입되고, 미 A-10 등도 참가하며, 육군의 차기전차 K-2(일명 흑표), K-21장갑차, 차기 복합형 소총, 공군의 공대지·공대공 무기 등 최신장비가 전시되었다.

합동화력운용시범을 총 지휘한 5군단장(중장 한기호)은 "시범은 실제 전투상황 하에서 상·하급 부대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찾아낸 적을 일시에 무력화할 수 있는 과학화된 무기와 시스템, 한미 연합전력의 실체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투수행태세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오로지 전방만을 바라보며 전투준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군대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휘소에 전파하면 이 정보를 기초로 전제대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장상황을 공유한 가운데 최적

의 타격체제를 선정하여 적 보다 먼저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신개념 전투수행체제를 말한다.

'포천시라 가능한 이야기' 대상 차지 제2회 포천시 전국 대학(원)생 홍보콘텐츠 공모전

제2회 포천시 전국 대학(원)생 홍보콘텐츠 공모전에서 '포천시라 가능한 이야기' (송주리·정은교, 한성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가 대상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작 '포천시라 가능한 이야기'는 포천의 관광명소와 특산물, 문화재 등을 팔의 시선으로 본 가족의 이야기로 풀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족의 행복, 추억을 느끼게 하며 잔잔한 감동을 전달한다. 다른 어떤 곳도 아닌 포천시에서 가능한 한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로 포천의 관광명소와 특산물 등을 조화롭게 표현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에는 장학금 200만원, 우수상에는 장학금 100만원, 장려상에는 장학금 50만원이 수여되며, 수

상작들은 시의 홍보물로 사용된다. 다음은 수상작 명단이다.

□우수상 ▶포천의 특산물(김문석,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국제협력전공) □장려상 ▶In Festival(현세영, 동양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 ▶동장군축제(오진용, 경북대학교 인터넷정보과) ▶제12회 산정호수 명성산여새꽃축제모션홍보영상(이수환, 한동대학교 경제학부/장유하,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사계절이 즐거운 곳-포천(장동국, 경희대학교 외식산업과) ▶포천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포스터광고(오예진, 대진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포천(박연진, 대진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2회 포천시 전국 대학(원)생 홍보콘텐츠 공모전에서 '포천시라 가능한 이야기' (송주리·정은교, 한성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인을 위한 실버 축제 개최 영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1천여명 참석



영북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해균)는 9월20일 영북초등학교에서 제1회 실버축제 한마당을 개최해 영북면 노인들의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이날 행사는 서장원 포천시장,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 각급 기관단체장과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저소득 독거 노인들 위한 합동팔순잔치, 먹거리축제, 우유, 막걸리 마시기, 낚시 등 명랑운동회, 풍물리공연, 밸리댄스, 고전무용, 국악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해균 영북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출고 배고픔을 참고 우리나라 경제를 앞에서 이끌어오신 훌륭한 부모님들이시니 앞으로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추천! 한마당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곱게 화장한 얼굴이 아니라 언제나 인자하게 바라보는 소박한 어머니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은 기다란 손톱에 메니 큐 바른 고은손이 아니라 따스한 손으로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주는 어머니의 거처를 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

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겸손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 사람이 없는 곳에는 웃음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입니다. 이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은 없을 테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언제나 긍정적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장
진실한 말 한마디로 믿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 진실한 목소리로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 좋은 글 중에서 -

아름다운 무관심

어느 때는 그냥 두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관심'이라는 간섭 때문입니다.

홀로서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아름다움, 고난을 통한 아름다움, 눈물을 통한 아름다움이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스스로 깨닫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게 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

라고 열매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저 따스한 햇살로, 맑은 공기로 먼발치에서 넌지시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이란 일으켜 세워 주고 볼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자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행복한 동행중에서-
(문의 011-342-5834)

웃음 넘치는 세상 만들기 ⑩

어느 요양 센터의 웃음꽃 만들기

왕방산 중턱에 구비진 길로 가을을 먹으며 달리다 보니 산새와 함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코스모스 나란히 반갑게 맞아준다.

길가에 방송이들 앞다투어 노래하고 해바라기 환하게 웃음 지으며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인 양 들려준다. 시내를 지나 골짜기로 안내하더니 산중턱 이따금 곳에 요양센터가 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편이 시행되더니 지금은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신다.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한눈에 아름다운 정경으로 들어오고 문 사이로 잡귀진 모습이 바로 현실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문 열어 놓으면 어르신들이 그냥 나가세요! 그래서 꼭 잡귀야 합니다! 애잔한 눈가에 눈물이 되시길 바라다"고 말했다.

영북면 관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날 행사는 당초 승화식품 김택곤 사장이 단독으로 개최하려하였으나, 영북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내 기관 및 단체에서 함께 참여하여 개최됐다.

이날 자녀가 없어 생일상을 받지 못한 독거노인을 위한 합동팔순잔치는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는 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김미경 주부명예지문 부단장 hsd5333@hanmail.net

칠 수 없는 분들이고 누워서 있는 분들의 모습에 과연 웃음을 드릴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을 했다.

때 마침 의정부에서 오신 신촌교회 노래 봉사자들의 은은한 노래 소리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게 하니 가슴깊이 솟구치는 마음들 때문인가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다른 곳으로 노래 봉사만 다녀왔지 정작 아버지께는 노래를 못 불러 드렸더라며 아버지 처음으로 이곳으로 모시고 노래 불러 드리게 되었다며 어머니는 해를 부르니 금세 울음바다가 되고 만다.

울음바다이후 웃음치료 시간을 가졌으니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데..여지로 웃을 수도 없고, 처음엔 난감했다. 어찌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소양강 처녀 노래로 시작하며 박수로 분위기를 바꾸어 봤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차츰 그 기분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누워서 소리만 들으며 박수 치세요"라고 해도 눈으로만 이야기하는 모습에 그래도 얼굴 표정에 웃음을 느끼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옆에서 조금만 손 잡아줘도 마음이 금방 환해 가는 것을 느껴지며 알아

가는 것이 정말 느껴진다.

하하하하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네~에! 잘하고 계시는 거죠. 입을 조금 크게 벌려 볼까요. 입에다 바람도 좀 불어 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얼굴을 한번 먼저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더 내뻐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큰 소리로 웃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하하 하면서 웃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들 때 더 웃어 보면 힘이 안 들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세요! 웃어 보니 웃을 수 있겠지요. 얼굴 찡그러셔도 웃어보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천사가 따로 없었구나.

웃음이 주는 마음은 거짓이 없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처럼 변해버린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노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빛이 되고자 웃음꽃을 드리고 싶다.



김순희 웃음치료사
문의 : 018-222-1790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9월 19일 ~ 9월 2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8. 9. 20 포천신문 제425호 발행

2008. 9. 30 포천신문 제426호 발행

2008.10. 10 포천신문 제427호 발행예정

취재기자 모집

소신있고 성실한 취재기자를 모집합니다. ☎031-542-1507